

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(안)

2023. 6. 5.

관계부처 합동

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(안) [요약]

1 추진배경

- 2022년 ICT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(2,488억불)을 달성했으나, 세계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'22년 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
 - ※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상, 금년 상반기는 어려움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보완할 품목과 시장 등 기회창출 노력이 필요
- 축적된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, 초거대 생성형 AI 출현,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기회요인을 최대로 활용하여 수출 활성화에 총력 지원 필요

2 수출 전망 및 대응방향

① 수출 전망

- 올해 디지털 시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챗GPT로 촉발된 초거대AI의 확산 등에 따라 전년대비 성장 전망*
 - * 세계 IT 시장 성장률 : ('21) 10.1% → ('22) 0.5% → ('23*) 5.5% ('23.4, Gartner)
- '23년 디지털 분야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수급 여건 개선, SaaS 수요 및 디지털콘텐츠 수출 확대 등에 따라 4분기 이후 반등 본격화 전망
- 제2의 수출시장인 아세안, 디지털 혁신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중동 등 이머징 시장에서 수출 기회 확대 예상

② 대응방향

- ① 초거대 AI 플랫폼, K-콘텐츠,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활용하여 SW·ICT서비스, 장비·부품 분야 유망 품목 육성
- ② 중동·아세안, 중남미 등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(네움시티 등) 수요 등을 보유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활로 모색
- ③ 우수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 체계 강화

3 비전 및 추진전략

비전	디지털로 다시 도약하는 수출 강국 대한민국	
추진 전략 및 과제	① 유망품목 육성	① SW·ICT서비스 주요 품목 특화 지원 ② ICT 장비·부품 수출 경쟁력 강화 ③ 디지털 전환·플랫폼정부 해외진출 확산
	② 신흥시장 개척	① (중·동)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수출 확대로 연계 ② (동남아) 아세안협력기금 및 수출개척단 파견 등 활용 ③ (중남미) ODA, 개발은행 사업 등을 활용한 기반 강화
	③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	①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전주기 지원 ②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기반 강화 ③ 온·오프라인 활용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·전시 지원

4 주요 추진과제

①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 품목 육성

◆ ①주요 SW·ICT 서비스 품목, ②미래 유망 장비·부품, ③디지털 전환·플랫폼정부 성과 등 수출 유망 품목 육성 지원

(1) SW·ICT 서비스 주요 품목 특화 지원

- (SW)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R&D, 사업화,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'SW프런티어 프로젝트' 추진
 - 유망 SaaS 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개발·사업화(컨설팅·마케팅) 및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등재 지원
- (AI 서비스) 기획단계부터 글로벌로 AI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를 신설하고,
 - 국산 AI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구매자 수요 맞춤형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바우처 지원
- (OTT) 국내 OT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 확대 및 콘텐츠·디바이스 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,
 - 글로벌 콘텐츠 마켓참가, 글로벌 펀드 조성 및 OTT 국제행사(국제 OTT 축제) 개최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
- (메타버스)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유망한 혁신기업(어플리케이션·디바이스 등)에 대해 컨설팅·사업화를 지원하고,
 - 해외 신도시·신공항 프로젝트에 XR솔루션 기업 등 참여시 현지화 개발비 지원

- (블록체인) NFT 등의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참여를 지원하고,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해 기술 검증(PoC), 컨설팅,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

(2) ICT 장비·부품 수출 경쟁력 강화

- (네트워크 장비·부품) 오픈랜(O-RAN)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국산장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,
 - 오픈랜 장비 국제 인증시험소 국내 구축 등을 통해 수출 기반 확대 추진
- (AI반도체) 국산 AI반도체의 데이터센터 적용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 연계 지원을 통해 수출 레퍼런스 조기 확보 추진

(3)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정부 해외진출 확산

- (디지털전환) 제조·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해외 시장조사, 현지화 실증 등 지원
- (디지털플랫폼정부)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진출 등 GovTech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,
 -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 공유 및 서비스·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추진

②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 시장 개척

◆ 외교협력, 수출개척단 파견, 거점 구축 및 지역별 특화지원 등을 통해 중동, 동남아, 중남미 등 신흥 유망 시장 개척

(1) (중동)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

- UAE, 사우디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고 민·관합동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(10월)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대
-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IT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에 우리 혁신기업을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거점 추가 확대 지원

(2) (동남아) 한-아세안 협력기금 및 수출개척단 파견 등 활용

- 한-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분야(데이터·AI 등) 협력 프로젝트 및 인재 양성 협업사업 추진
-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에 수출개척단 파견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동남아 국가와 의료AI 협력사업 추진

(3) (중남미) ODA,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

- '한·중남미 ICT 장관 회의'('17년 중단)를 복원하고 과학기술·ICT 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중남미 협력 기반 강화
- 국가별 디지털 전환 성숙도에 따라 ODA·개발은행 협력 사업 또는 수출 상담회 지원 등을 활용하고 민간 주도 협력거점 신설 추진

3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

◆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, 수출 기반 강화 및 글로벌 홍보·전시 등 종합지원 체계 구축

(1)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

-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출범(6월)하여, 컨설팅·매칭 등 종합지원 강화
-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지원
- 장·차관 간담회, ICT 수출동향협의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및 애로사항 적시 해소

(2)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기반 강화

- 혁신 제품·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확보를 돕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*(대통령 지시 '23.2)
- * 신기술 인증 접수 창구를 신설, 규제 샌드박스 활용, 인증 신설, 해외 인증 지원 등을 종합 연계
- 해외 수요기반 기술 전환·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R&D 신설
- 디지털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유망 수출기업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우수 디지털 기업 무역보험 우대 지원

(3)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·전시 지원

- 메타버스 플랫폼(제페토, 이프랜드 등)에 상설 전시관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업 제품의 글로벌 전시·홍보 지원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수출 현황 및 전망	2
III. 대응방향	5
IV. 비전 및 전략	7
V. 추진과제	8
1.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지원	8
2.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	14
3.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경쟁력 강화	18
VI. 추진 일정	24

I. 추진배경

□ 우리 경제의 핵심인 ICT 수출, 세계 경기 둔화로 하락

- 2022년 ICT 수출은 팬데믹 이후 국가경제의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*하며 수출 확대에 핵심** 역할

* '22년 디지털 산업 수출은 2,488억불, ** 전체산업 수출액(8,139억불)의 30.6%를 차지

-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*, 엔데믹에 따른 SW 실적 하락** 등으로 '22.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

* 글로벌 IT수요 감소, 재고누적·단가하락 등으로 반도체 수출(△35.7%, '23.5월) 감소

** 전년도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'22년 하반기부터 SW 수출실적이 본격 하락으로 전환

□ ICT 수출구조 보완으로 수출 잠재력을 탄탄히 확충 필요

- 디지털 분야는 전체 수출의 약 30%*를 차지하는 주력 분야로서 ICT 수출 회복은 전체 수출 및 무역수지에 직결

* 전체 수출 중 ICT 수출 비중 : 29.1%('19년), 32.4%('20년), 32.2%('21년), 30.6%('22년)

-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* 상 금년 하반기 내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보완할 품목과 시장 등 기회창출 노력 필요

* '22년 디지털 산업(기기) 내 반도체 수출비중은 56.1%

디지털 수출 드라이브로 범부처 수출목표 달성에 기여

- ◆ 챗GPT 확산,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역동적인 지역과 기업 육성을 통해 신시장 선점 추진
- ◆ 축적된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·관의 노력을 결집하고 수출 활성화 총력 추진

II. 수출 현황 및 전망

1 수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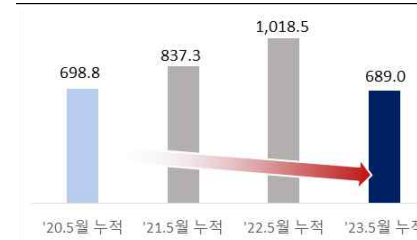
□ [현황]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우리 디지털 수출도 하락

- (ICT 기기) 글로벌 경기침체, 메모리 반도체 업황부진 등으로 작년 7월 수출실적이 하락세로 전환된 후 현재('23.5월)까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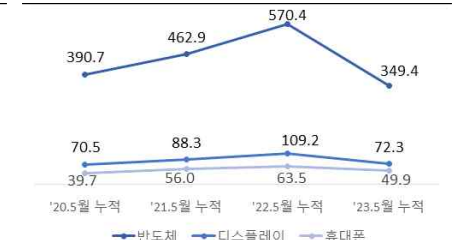
* ICT 기기 수출실적(억불) : ('21.5월 누적) 837.3 → ('22.5월 누적) 1,018.5 → ('23.5월 누적) 689.0

-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(전체의 50.7% 비중, '23.5월 누적기준)의 실적이 부진하며, 소비위축에 따른 디스플레이·휴대폰 등의 주력품목도 동반하락

【 ICT 기기 수출 실적(억불) 】



【 주요품목별 수출 실적(억불) 】



- 반면, 코로나 이전 대비 시스템반도체, 스마트폰 부분품* 등 일부 품목과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비중**은 확대

* 카메라모듈, 3D센싱모듈 등

** 기업별 수출 비중('19.5월 누적→'23.5월 누적, %) : (대기업) 76.9→69.2 (중소중견) 23.1→30.4

- (SW·ICT서비스) 코로나로 급증했던 SW 등에 대한 비대면 수요가 엔데믹으로 감소되면서, '22년부터 수출실적이 하락세로 전환

* ICT서비스 수출(전년대비 증감): ('20) 114(5.4%) → ('21) 181(58.4%) → ('22) 155(△14.5%)

- 반면, 디지털콘텐츠 수출은 K-콘텐츠의 경쟁력에 따른 글로벌 OTT의 투자증가 등에 따라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(↑36.8%)

2 수출 전망



□ 하반기를 시작으로 4분기 이후 본격적 수출실적 개선 예상

- 주요국 긴축정책 등으로 '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.8%로 예상되나, - 디지털 시장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*와 챗GPT로 촉발된 초거대AI의 확산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5.2% 성장 전망

* 세계 디지털전환 시장 규모: 5,564억불('22년) → 1조 6924억불('30년) (프리티즌서치)

-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로 SW·ICT서비스 중심의 성장 전망
- ICT기기 시장은 메모리반도체 침체로 시장 축소가 예상되나, 디지털 전환에 따른 5G 인프라* 및 AI반도체 등의 지속적 수요 확대 기대

* 글로벌 5G 시장 규모 : 145억불('23년) → 370억불('26년) (프랜트포스리서치)

- '23년 ICT기기 수출은 핵심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수급 여건 개선, 대외환경 변화* 등이 예상되는 4분기 이후 반등 전망

*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기기 생산·수요 정상화,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등

- 3분기 이후 메모리반도체 재고 축소* 및 초거대AI 확산에 따른 고용량 메모리, 시스템반도체 시장 확대** 등으로 반등 주도 전망

* D램 수급 전망(Gartner, %) : ('23.1Q) 117.8 → ('2Q) 111.9 → ('3Q) 103.9 → ('4Q) 98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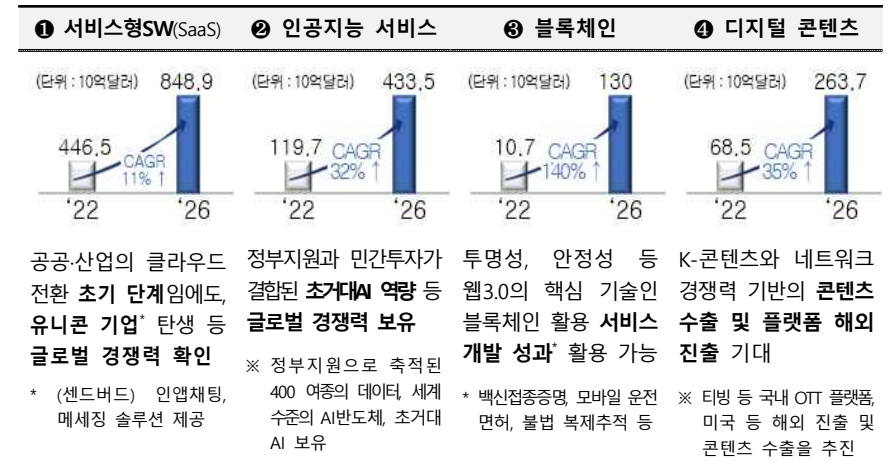
** '23년 용도별 시스템반도체 성장률(Omdia, %) : (전장) 9.4, (통신) 6.4, (컴퓨팅) 5.5 등

- OLED, 휴대폰 부품품*, 반도체 기억소자 저장장치**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성장에 따라 디스플레이, 휴대폰 등도 수출 확대 기대

* 카메라모듈, 3D센싱모듈 등 ** SSD(Solid State Drive)

- SW·ICT 서비스 수출은 하반기 이후 ①디지털 전환에 따른 서비스형 SW(SaaS) 수요 확대, ②인공지능, ③블록체인 등의 신시장 진출, ④디지털 콘텐츠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 가능할 것으로 전망

< 유망 수출품목별 전망(프리티즌서치, '22년) >



□ 아세안·중동 등 이머징 시장은 새로운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전망

- 미·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시장 이원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,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*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
* 美(인도-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, IPEF) vs. 中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, RCEP)

- 반면, 제2의 수출시장인 아세안과 디지털 혁신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중동 등 이머징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출 확대 기대
※ 디지털전환시장 성장률('22~'28 연평균) : 동남아(21.4%), 중동(15.8%), 중남미(15.1%)

중동	자원 부국에서 디지털 혁신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혁신역량 집중 ※ (사우디) 네움시티 등 사우디 비전 2030, (UAE) 두바이 커머시티 등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
아세안	글로벌 생산 거점화, 디지털 전환·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※ (인도네시아) 수도 이전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, (태국) 비즈니스허브 구축
중남미	북미 인접 거대 시장,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인프라, 행정·서비스 수요 증가 ※ (멕시코) 국가 디지털 전략, (칠레) 디지털 2035

III. 대응방향

◆ 기존의 수출구조를 보완하여 신성장 분야, 이머징 마켓, 혁신적 플레이어에 집중하여 역량을 키우고 수출 및 해외진출 성과를 실현

□ AI 본격화,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분야에 집중

○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, SW·ICT서비스와 디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보유

- 급성장하는 AI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초거대 AI 플랫폼* 확보, 역동적인 기업 활동**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신시장 선점 가능

* 세계 3번째 초거대 AI 개발 : 美 GPT3('20)→中 판구('21)→韓 하이퍼클로버('22)

** 국내 AI기업(개) : ('20) 933 → ('22) 1,915, 매출액 : 3.97조원(42.7%) 증가

- 우리만의 디지털플랫폼과 경쟁력 있는 K-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메타버스·OTT 등 고부가 서비스 영역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

※ K-콘텐츠 수출액(억불): ('17) 88.1 → ('18) 96.2 → ('19) 102.5 → ('20) 119.2 → ('21) 124.5

○ 국내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AI 반도체, 통신장비는 우리 HW 수출 역량 제고를 이끌 유망 품목

- 특히,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토대로 최근 출시*한 국산 AI 반도체 등을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육성

* (리벨리온) 'ATOM'('23.2), (퓨리오사AI) 'Warboy'('22.3), (사피온) 'X220'('20.11)

⇒ 초거대 AI 플랫폼, K-콘텐츠 등의 경쟁력을 활용해 SW(SaaS), AI 서비스, OTT, 메타버스 및 융합서비스 등 시장 선점 추진

⇒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AI반도체 등 HW 분야에서도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 추진

□ 중동, 아세안, 중남미 등 성장시장에서 기회 창출

○ 인프라 투자·디지털 전환 등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신시장*을 특정국 수출 집중도**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

* 지역별 성장 전망 : (선진국) ('22)2.7% → ('23)1.3%, (신흥국) ('22)4.0% → ('23)3.9%

** ICT 수출 중 마중베트남 3개국 비중(%) : ('20) 75.6 → ('21) 75.0 → ('22) 72.1 → ('23.5월 누적) 69.9

- (중동) 최근 정상 경제외교로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고 탈석유·디지털 전환, 대형 메가프로젝트(네옴시티) 등 역동성·성장성 부각

- (아세안) 미·중 분쟁으로 글로벌 생산거점이자 제2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중이며 한류 열풍, 대규모 디지털 프로젝트 등 수출기회 보유

- (중남미) ODA 등 국제협력사업이 활발하고 디지털 정부 구축 등 ICT 서비스 수요가 높은 중남미 시장을 수출 확산의 기회로 활용

⇒ 중동·아세안, 중남미 등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수요 등을 보유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활로 모색

□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 디지털 혁신기업에 집중

○ 디지털은 스타트업과 딥테크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해 나가는 분야

○ 우리 디지털 혁신기업들은 지난 1월 CES에서 다수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경연장에서 우수성과 경쟁력을 입증

* CES 2023('23.1) "혁신상"에 우리 기업 134개사(30.9%), 181개(29.7%) 제품이 선정

- 혁신기업의 수출사례*도 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의 성공 가능성도 확인되어, 혁신기업의 수출동력화를 위한 집중 지원 필요

* ① 베스핀글로벌(클라우드) : UAE 1위 통신사로부터 1400억원 투자유치('22),

② 루닛(AI) : 브라질 알버트아인슈타인병원과 AI영상분석 솔루션 수출 계약 체결('22)

⇒ 우수한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 체계 강화

IV. 비전 및 전략



V. 주요 추진과제

1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 품목 육성

- ◆ **SW·ICT 서비스 분야의 유망품목 특화지원**을 강화하고, AI반도체 등 **차세대 장비·부품 육성** 등을 병행 추진



- (SW·ICT 서비스) 글로벌 진출 지향 SW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AI 서비스의 해외 확산을 위한 글로벌 바우처 신설
 - OTT, 메타버스 관련 국제행사 및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해 네트워킹 · 투자유치를 지원하고, 플랫폼 기업과 동반진출 및 글로벌펀드 조성 추진
 - 블록체인 국제표준화 및 현지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
- (장비·부품) 국제 공동연구,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오픈랜 등 네트워크 장비·부품 수출 시장 선점
 - 데이터센터 적용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 연계 지원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수출 레퍼런스 조기 확보
- (디지털플랫폼정부) 기존 수출사업 연계 및 국제개발은행 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성과 글로벌 확산

1 SW·ICT 서비스 주요 품목 특화 지원

(1) SW 글로벌 SW 및 서비스형 SW(SaaS) 기업 육성 지원 강화

- **(글로벌 SW기업 육성)**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SW기업의 R&D부터 해외진출까지를 지원하는 ‘SW Frontier’ 프로젝트 추진
 - 민간 투·융자 받은 기업, 예비고성장 기업 등을 **Bottom-up** 방식으로 선정하고, 기업 자율 R&D 과제 및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 지원
 - * 중소스타트업 스케일업 R&D 신설 검토(24~) → 현지 마케팅, 레퍼런스 확보 등 후속연계 지원
- **(글로벌 사업화 지원)**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국내 SaaS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, 글로벌 SaaS 개발 환경 조성 및 사업화 지원 추진
 - ※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(AWS·구글·MS 등)이 기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·마케팅·컨설팅·교육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내 SaaS 기업 지원
- **(해외 판매망 확보)** 유망 서비스형 SW(SaaS)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진입 및 세일즈 원스톱 지원*
 - * SaaS 마켓플레이스 등재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, 글로벌 CSP와 연계하여 국내 SaaS의 집중 홍보를 위한 ‘글로벌 파트너십 데이’ 행사 개최
 - SaaS 글로벌 품질 표준 수립을 주도하고 품질 검증 서비스 제공(24.~)
- **(수출통제제도 개선)** SW기업이 전략물자 허가없이 수출하여 처벌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 및 대응가이드 개발·보급 추진(23.1~)
 - *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SW(대부분 해당)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해외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나 국내 SW기업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대응역량 부족
 - 서비스형 SW(SaaS) 등 공개·배포되는 SW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판정기준 개선방안 마련(24.~)

(2) AI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기획·개발·실증 및 글로벌 바우처 지원

- **(글로벌 AI 기획개발)** 기획 단계부터 해외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AI서비스 기획·컨설팅·개발·실증·보급 전 과정 지원(24.~)
- **(AI 글로벌 바우처)** 국산 AI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구매자 수요맞춤형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바우처 신설*(23.6~)
 - * 국내 AI 서비스를 개발·활용하려는 해외기관·기업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(23. 30억원)
- **(해외 협업 기반) AI 협업 수요가 있는 국가(동남아·중동 등)를 중심으로 AI 공동 연구***를 통해 AI 기술교류 협력기반 마련 추진(23.7~)
 - * (공동연구) 싱가포르와 친환경(net-zero) 건물 관리 AI 응용기술 개발·실증(23.~)

(3) OTT 플랫폼·콘텐츠·디바이스 동반진출 지원 및 판로개척(행사·마켓 등)

- **(동반 진출)** OTT+제작사 컨소시엄 제작지원, 플랫폼·콘텐츠·디바이스(스마트TV) 기업간 **협의체***를 통한 공동채널 런칭 등 해외유통망 확대
 - * 글로벌 1위 가전사 및 OTT기업 등이 참여하는 “해외진출 협력 협의체”를 통해 스마트TV FAST(Free Ad-supported Streaming TV) 채널에 국내 OTT 콘텐츠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 공략
 - 해외진출형 OTT 콘텐츠 제작시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, 제작지원과 연계한 글로벌 콘텐츠 마켓* 참가를 강화하여 홍보·유통 활성화
 - * 칸 시리즈(4월), MPCOM(10월), 아메리칸 필름 마켓(10월) 등과 연계한 투자유치·네트워킹 행사 확대
- **(판로 개척)** 해외 거점*을 통해 현지 정보제공, 네트워킹 등 초기 진출을 밀착지원하고,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더빙·자막 등 현지화 재(再)제작 지원
 - * 해외IT지원센터를 활용, 23년 1개소(미국) → 기업 수요에 따라 중동, 아시아 등 향후 확대
 - 수출개척단*을 통한 OTT 및 디지털미디어 중소·벤처 판로개척지원
 - * 베트남(6월, OTT사 협력MOU), 싱가포르(6월, 커뮤니케이션 아시아 박람회 8개사 참가 지원) 등
- **(투자 확대)** OTT 등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육성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, OTT 특화 국제행사* 개최(10월, 부산)를 통해 투자 유치 지원
 - * 글로벌OTT어워즈 포함 ‘국제 OTT 축제’를 개최하여 전세계에 국내OTT를 홍보·브랜드화

[4] 메타버스 | 수출 역량강화 및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

- (수출 역량강화) 글로벌 빅테크 기업*과 연계하여 국내 메타버스·확장현실(XR)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유치 등 역량 강화 지원('23.8~)
 - * 마이크로소프트, 유니티테크놀러지, 엔비디아, 네이버, 카카오, SKT 등
- 수출 유망기업(어플리케이션·솔루션·디바이스 기업 등)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* 진출 전략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('23.8~)
 - * 호라이즌월드(메타), 로블록스, 제페토, 디센트럴랜드, 샌드박스, 위버스 등
- (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) 해외 공공 주도 대형 프로젝트*에 해당 분야 기업과 국산 메타버스·XR솔루션 기업의 동반진출** 지원('23.9~)
 - *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(네움시티 등),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, 의료 클러스터 등
 - ** 전략컨설팅 후 계약 체결시, 현지화 개발비 등 후속 지원(최대 10억원)
- (이종분야 동반수출 지원) 타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수출* 추진을 위해 이종 분야와의 비즈매칭 및 수출 지원('23.9~)
 - * (예시) 메타버스-미디어, 메타버스-디지털헬스, 메타버스-교육, 메타버스-웹툰 등

[5] 블록체인 | 협력사업 추진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

- (해외진출지향 기업육성)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글로벌 지향형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선별하여 현지 시장 맞춤형 지원 추진
 - 기술검증 사업을 통한 수출용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*('23.6~) 및 기업 육성 사업으로 컨설팅·사업화·투자유치·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 검토
 - * 블록체인 기술검증(PoC) 사업 내 해외진출 분야 신설('23)
- (국제표준화 지원) 분산신원증명, 대체불가능 토큰 등 다양한 응용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국제 기술주도권 및 대표사예 확보('24~)
 - ※ 현재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(플랫폼 기술 등) 중심의 정책연구, 포럼 운영 등을 통해 관련 국제표준 7건 채택 완료(국제표준화기구(ITU-T), '20~22)

[2] ICT 장비·부품 수출 경쟁력 강화

[1] 네트워크 장비·부품 | 국제 공동연구 및 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협력 강화

- (공동연구) 5G 특화망, 오픈랜(O-RAN) 등 차세대 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산 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('23.7~)
- (수출 기반조성) 오픈랜 국제표준화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민·관 연합체(오픈랜 연합체)를 운영하고,
 - 국제 인증 체계 'K-OTIC' 구축* 및 국제 다자협약체 참여** 등을 통해 오픈랜·5G 장비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
 - * 오픈랜 장비 국제 공인 인증시험소(오픈랜 얼라이언스가 주관)를 국내에도 구축
 - ** 美 주도 14개국 간 인도-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內 디지털 인프라-공급망 논의 참여
- (판로개척) 해외 전시회(MWC 등) 참가 지원을 통해 국산 네트워크 장비·부품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

[2] Si반도체 | 실증사업을 통한 수출 레퍼런스 조기 확보

- (AI 반도체 수출 기회 확대)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을 연계하여 수출 레퍼런스 조기 확보 추진*
 - ** K-클라우드 프로젝트 : '23년도 약 428억원 투자
 - ※ 'K-클라우드 얼라이언스', 'PIM반도체 설계연구센터' 등을 활용하여 팹리스-파운드리-패키징으로 이어지는 AI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지원



- (해외진출 지원) AI반도체-클라우드-AI서비스 관련 기업·기관 및 정부 간 협의회로 'K-클라우드 수출지원 얼라이언스*' 신설('23.4)
 - * 해외 AI반도체 기술 동향 및 수요처 공유, 국내 레퍼런스 확보, 판로개척 등 지원

3 디지털 전환 ·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 확산

(1) 디지털 전환 국내 우수 성과를 발굴, 해외 시장조사 및 현지화 실증 지원

- 제조·건설 등 산업별 우수한 디지털 전환 성과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조사 및 현지화 등 지원('23.5~)
- 현지 실증 및 검증 프로젝트(PoC) 등을 통한 수출 확대도 지원

(2)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존 수출지원사업 연계, 세계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

- (혁신서비스 창출)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GovTech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
 - 공공·민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 공유, 초거대AI 활용 및 실증, 민관 협력 위기대응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혁신서비스 창출 지원
- (해외진출 지원)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 서비스와 구축 경험, 기술력을 활용한 개도국 등 해외진출·확산 추진
 - GovTech 분야에 따라 SW, SaaS, AI서비스 ICT 기기 등 기존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, 해외진출 집중 지원
 - 세계은행* 등 국제개발기구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(핵심기술, 시스템, 산업 등)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

* DDP(Digital Development Partnership) 펀드 등 개도국 ICT 발전지원 기금 활용



2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 시장 개척

◆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중동 · 아세안, 중남미 등 유망시장 개척



- ① (외교 협력) 고위급 양자회담 통해 디지털 분야 협력·투자 확대
※ (동남아) 한-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, (중남미) 한·중남미 ICT 장관회의 등
- ② (수출개척단) '정부 간 협력' + '민간 비즈니스 활동'을 결합한 수출개척단 파견 등 비즈니스 성과를 수출 확대로 연계
※ (동남아)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 등, (중동) 사우디, UAE 등
- ③ (거점 구축) 공공거점(UAE 해외IT지원센터 신설)에 민간주도 협력거점을 추가하여 전·후방 완결형 현지 지원 강화
- ④ (특화지원) 한·아세안 협력기금(동남아), ODA·국제개발은행 협력사업(중남미) 등을 활용한 진출 기반 마련

1 [중동]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

◆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협력분위기가 조성된 UAE, 사우디 중심으로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, 공공·민간 거점 신설 등을 통해 수출 확대 성과를 창출

- (외교 협력) 정상 경제외교로 조성된 협력분위기를 디지털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동 국가와의 외교 협력 강화
 - UAE, 사우디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, 협정체결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업간 투자·공동사업 협력 기반 마련
- (민관 수출개척단 파견) 사우디의 '네옴시티(700조 규모)' 프로젝트 등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를 위해 민·관 수출개척 활동 전개
 - 민·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사우디, UAE에 파견('23.10.)하고, 기업의 해외 판로 발굴·확대를 위한 '수출 로드쇼' 개최 등 추진
 - 중동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(예: 네이버의 사우디간 디지털전환 협력 MoU) 및 정책지원 사항 발굴을 위한 민관지원단 구성·운영('23.9~)
- (공공·민간 거점 신설) 국내 디지털 기업의 중동진출 및 확산 거점인 중동 IT지원센터*(두바이) 신규 구축 추진('23.3~, 기획 등)
 - 또한, 현지 파트너 기업의 인프라·자원을 활용*하는 민간주도 협력 거점(UAE, 사우디, 쿠웨이트, 요르단 등) 신설 추진

* 미국, 일본, 중국, 싱가포르, 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)에서 6개 IT지원센터 운영 중

* 현지 기업·기관이 韓 기업 현지 사업화를 위한 사무공간, 테스트베드, 네트워크 등 지원

2 [동남아] 아세안 협력기금 및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한 진출 확대

◆ 한-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이 우수한 국가*를 중심으로 개척단 파견, 민간 협력 강화 등 수출 확대에 총력

* 필리핀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

- (외교 협력) 아세안장관회의, G20장관회의 및 고위급 양자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간 디지털분야 협력을 강화하고,
 - 아세안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논의 및 전수를 위한 공동개발 협력사업* 발굴·추진 및 관련 협의체 등 운영
- * (예) 한-아세안 오픈데이터사전 개발사업('21~'23, 8억원) 등
- (아세안 협력기금) 한-아세안 협력기금 확대*('23.~)를 계기로 디지털 분야(데이터·AI 등)의 공동프로젝트를 기획하고, 시장진출에 적극 활용
 - * 지난해 한-아세안 연대 구상('22.11.)에서 한-아세안 협력기금을 2022년 1,600만 달러(200억원 규모)에서 2027년까지 3,200만 달러(400억원 규모)까지 증액 발표
 - 한-아세안 공동 데이터 축적·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개발 및 융합·확산 협력 프로젝트 추진('24.~)
 - ※ (예시) 한-아세안 디지털 Youth-스타트업 데이터AI 경진 대회 개최, 탄소분야 AI 솔루션 개발 등
 - 아세안의 잠재적 디지털 인재양성 협업 수요를 기반으로 '한-아세안 디지털 스쿨' 협업사업 추진('24.~)
 - ※ 교육생과 한국기업과의 취업 연계 네트워킹 행사, 현지정보 공유 간담회 등
- (민관 수출개척단 파견) 디지털(의료AI, SW, 메타버스 등) 수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필리핀에 수출개척단 파견('23.6.)
- (의료AI 협력사업 추진)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협력*(데이터 확보, 해외병원 교차 검증, 인허가) 추진('23.6~)
 - * (싱가포르) 닥터앤서 교차 검증, 의료SW 인허가 상호 지원('23~), (태국) 태국 병원에 한국 9개 의료SW 보급 추진('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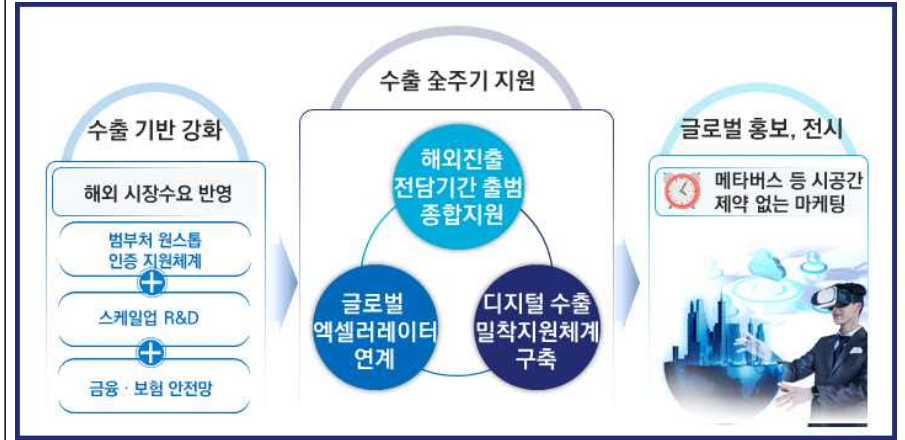
3 [중남미] ODA,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통한 디지털 수출 여건 조성

◆ ODA 및 개발은행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, 민간 거점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 창출 기회 마련

- (외교 협력)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‘한·중남미 ICT 장관 회의’를 복원하여 협력프로그램 신설 및 수출 연계
 - 이와 함께 과기·ICT 공동위원회(브라질·코스타리카 등) 및 중남미 외교단(GRULAC)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수출 지원
- (국가별 차별화 전략)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에 따라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여 민·관 협력형 진출 전략 마련·추진
 - (민간 주도형) 해외전시회,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·기술 협력 중개 지원으로 간접 지원* 추진(브라질, 멕시코, 칠레, 콜롬비아 등)
 - * 올해에는 멕시코, 콜롬비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 대상 수출상담회 등 추진
 - (정부 주도형) ODA*를 활용하여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사업으로 연계(코스타리카, 파라과이, 페루, 도미니카 공화국 등)
 - * 코스타리카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, 파라과이 방송시스템 구축 등 ICT 인프라 지원
- (민간 거점 확보) 해외진출 협력 프로젝트 수행 관련 현지 파트너 기업의 인프라·자원 활용하는 민간주도 협력거점 신설 추진(‘24~)
 - ‘24년 아르헨티나·콜롬비아를 중심으로 민간거점을 신설하고 이후 칠레, 브라질, 멕시코 등으로 확산

3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

◆ ‘디지털 혁신기업·인재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 부터 마케팅까지’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지원



- ① (전주기 지원)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출범하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 지원
 - 디지털 분야 수출 밀착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정책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
- ② (기반 강화) 스케일업 R&D를 신설하여 해외 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개발 및 성장 지원
 - 디지털 수출 기업이 제품·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 - 디지털 수출 기업에게 대출 및 무역보험 우대 지원
- ③ (홍보·전시)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 구축 등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글로벌 홍보 지원

1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

◆ 해외진출 종합지원,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결, 조인트벤처 설립, 수출 밀착지원체계 운영 등 디지털 혁신기업 전주기 수출 지원 강화

□ 해외진출 전문기관 출범, 컨설팅·매칭 등 종합지원 강화

-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*을 출범(6월), 해외시장 개척, 컨설팅, 현지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 강화
 - *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 부설 본투글로벌센터(Born2Global Center)을 독립법인화
- 해외진출 전문기관으로 대표성·위상을 확보함으로써, 국제기구·해외정부·기업 등 파트너와 프로젝트 매칭, 민간 현지거점 확보 등 역할 확대
 -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(GSMA)와 Mobile360 행사 개최(9월, 국내)
 - ※ 국내 AI, OTT, 콘텐츠 기업들을 해외 유력 통신사와 연결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 창출
 - 미주개발은행(IDB)과 협력하여, 조인트벤처 방식(국내 디지털기업과 현지 비디지털기업 결합)방식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추진 지속 지원
 - ※ IDB와의 협력모델을 WB, AfDB, ADB 등 전세계 개발은행으로 확산 추진

□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결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

- (해외 창업 보육기관 연결)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의 현지 사업화·성장 프로그램*을 제공하여,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(‘23.7~)
 - * 현지 AC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교육, 기술지원, 사업화를 지원하고,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멘토링, 투자IR, 판로개척 지원
 - ※ 예) ‘20년 실리콘밸리AC(Garage Technology Venture) 지원을 받은 메스프레소는 원격교육 플랫폼 ‘칸다’를 50여개국에 출시하여 해외매출 확대(‘20. 1.7억원 → ‘22. 39억원)
- (국내-해외 창업 보육기관 연결) 국내-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간 협력프로그램*을 통해 선진 창업·보육 기법을 공유하고, 국내 디지털 창업 생태계 강화(‘23.7~)
 - * K-Global 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(‘23. 20.2억원)을 통해 국내 AC(5개사)와 해외 AC 연결

□ 국내외 기업간 파트너십 지원 강화

- (조인트벤처 지원)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현지화와 성장을 위한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및 조인트벤처 설립 지원
 - * 전세계 18개국 현지 29개 조인트벤처 완료 성과(‘21~, 누적), 기설립 조인트벤처 후속지원 산실(‘23.3~)
 - 현지 합작법인의 성장을 위해 후속 지원(투자유치, 사업개발 등)
- (With 플랫폼 프로젝트 추진) 국내 디지털 서비스기업과 플랫폼기업과의 해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및 시범사업 추진(‘23.6~)
 - 해외 진출 진행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파트너십 형성, 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실증 프로젝트 지원
 - 플랫폼+서비스기업 동반진출 모델을 확대하고, 디지털+他산업으로 확산을 위한 “디지털 동반진출 협의체” 발족(‘23.6)

□ 디지털 기업 수출 밀착지원 체계 구축

- (최고위급 간담회) 정상 경제외교 활동*을 토대로 디지털 기업의 수출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
 - * 뉴욕구상(‘22.09), 한-사우디 정상회담(‘22.11), 한-UAE 정상회담(‘23.1), 한-일 정상회담(‘23.5) 등
 -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부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정책 반영 및 밀착지원 추진

< 애로해소 지원 대표사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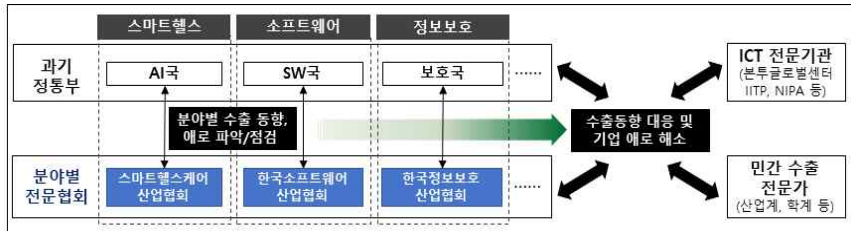
- ◆ (에이슬립社) 국제표준 제정(미국 진출 기반)을 위한 노하우와 전문 인력 부족하여, ICT 표준 전문지원기관(TTA)과 연계하여 자문서비스 및 전문가 교육 등을 지원 중
- ◆ (포티파이社) 정신건강 상담 SW를 소속기관 콜센터 및 TV홈쇼핑 기업 콜센터와 협의할 수 있도록 연계

- (ICT 수출동향 협의회) 디지털 분야 수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‘ICT 수출동향 협의회’를 운영(‘23.3~)

* NIPA(수출 전담기관), IITP, NIA, B2G 등 소관 협·단체 15개 기관으로 구성

- 업계·분야별 수출·인론동향, 현장 주요 애로사항,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(예산사업, 애로해소, 현장방문, 정책발표 등) 추진현황을 매주 점검 예정

< '디지털·ICT 분야 수출동향 협의회' 운영체계 >



- (수출지원센터) 수출 애로를 겪는 국내 ICT 기업이 상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및 지원기관·전문가 안내, 애로사항 접수·해결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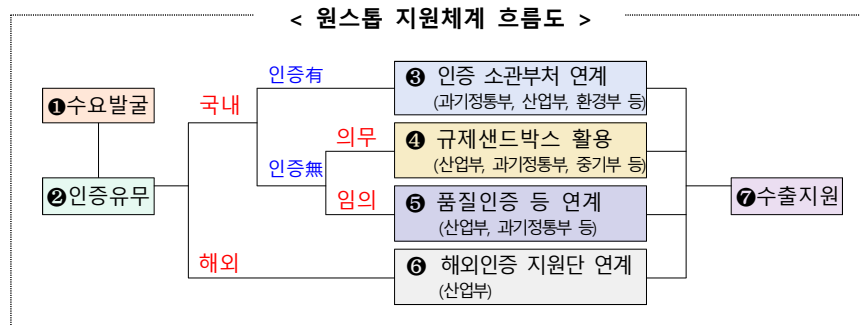
②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기반 강화

◆ 신기술 제품 국내외 인증 지원체계 마련, 해외시장 수요 기반 스케일업 R&D 신설, 수출 금융·보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수출 기반 강화

□ 신기술 제품 국내외 인증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

- (체계구축) 혁신 제품·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* 구축(대통령 지시, '23.2)

* 신기술 인증 접수 창구를 신설, 규제 샌드박스 활용, 인증 신설, 해외 인증 지원 등을 종합 연계



- (융합 품질 인증) 디지털 융합 新제품·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국내·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"ICT융합품질 인증제도" 확대 추진 ('19.~'22. 평균 36.5건 → '24.~ 연 50건)

□ 해외시장 수요 기반 스케일업 R&D 신설

- (글로벌 스케일업 R&D) 민간과 함께 해외진출 유망기업을 발굴*하고, 글로벌 사업화 관점에서 기술전환·고도화를 지원하는 R&D 신설 검토

* 대기업·금융기관 등으로 既구성된 ICT민관협의체를 확대하여, 함께 유망기업 발굴

- ①최소기술력 검증부터 ②시장수요 기반 기술전환(Pivoting) 및 ③해외시장 맞춤형 R&D까지 쉼주기 지원

- (기존 성과 수출확산 R&D) 기존 우수 R&D 성과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·변환을 지원하는 R&D* 신설 검토

* 우수 R&D 성과 보유 기업이 글로벌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현지 시장수요 발굴 → 현지기업 매칭 → 기술 고도화 → 사업화 지원을 연계 지원

□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금융·보험 안전망 구축

- (정책금융) '23년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(7,000억원)을 활용하여, 유망 디지털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상품 제공 추진('23.6)

- (무역보험)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무역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기업 대상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적시 지원을 강화하고

- 우수 디지털 기업(미래 유니콘 선정기업, SW고성장클럽 등)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* 및 지원 절차 간소화

* 보험한도(1.5~2배 확대), 보증비율(90→95%), 보증·보험료 할인(10~20%)

3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·전시 지원

◆ 수출기업 전용 메타버스 전시관 구축 및 온오프라인 국내외 전시 연계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전시·마케팅 지원 강화

□ 메타버스를 글로벌 홍보·전시의 새로운 장으로 활용

- (메타버스) 제페토, 이프랜드 등 주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수출 유망기업 상설 전시관 구축 추진 등 글로벌 전시·홍보 지원

제페토	이프랜드
	
○ 회원수 약 3억 명, 해외 약 200개국 진출	○ 회원수 약 1,280만 명, 해외 49개국 진출

- 수출 유망기업 전용 월드*를 구축하여 제품 전시·시연, 상담 및 크리에이터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(기업·제품 라이브 쇼 등) 등 지원

* 주요 타겟 국가별 콘텐츠 홍보를 위한 언어별 월드를 개별 구축(20개국 가능)

□ 온·오프라인, 국내외 전시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밀착 지원

- (온·오프라인 연계) 온라인 전시 플랫폼(메타버스 전용월드, ICT WOW*)에서 바이어 사전 미팅 후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후속·연계 상담 추진(23.10~)

* ICT WOW는 국내 디지털 기업의 온라인 전시관 및 컨퍼런스 지원 플랫폼

- (전시참가 지원)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수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(23.1~)

* (국내) 월드IT쇼(국내 최대 IT박람회) (국외) CES(미국, 가전), MWC(스페인, 통신), K-Global@ (실리콘밸리·북경·베트남, 스타트업), HIMSS(미국, 의료), NAB(미국, 방송장비) 등

- (사후지원) 전시회 상담이 성과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출 전문 컨설팅, 마케팅, 해외실증 등 해외진출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(23.4~)

VI. 추진일정

주요 내용	일정	소관 부처
전략1. [품목]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육성		
1-1. SW·ICT 서비스 주요 품목 특화 지원		
- (SW) 글로벌 SW 및 서비스형 SW 기업 육성 지원 강화	'23~	과기정통부
- (AI서비스) 글로벌 서비스 기획·개발실증 및 글로벌 바우처 지원	'23~	과기정통부
- (OTT) 플랫폼·콘텐츠·디바이스 동반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	'23~	과기정통부, 문체부
- (메타버스)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	'23~	과기정통부
- (블록체인) 협력사업 추진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	'23~	과기정통부
1-2. ICT 장비·부품 수출 경쟁력 강화		
- (네트워크 장비·부품) 국제 공동연구, 표준·인증 체계 구축, 다자협약체 참여, 판로개척 지원	'23~	과기정통부
- (AI반도체) 실증사업을 통한 수출 레퍼런스 조기 확보	'23~	과기정통부
1-3. 디지털 전환·융합서비스 해외진출 확산		
- 디지털 전환 성과 해외진출	'23~	과기정통부
-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성과 해외진출 지원	'24~	과기정통부
전략2. [시장]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 시장 개척		
2-1. (중동)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확대로 연계		
- (외교협력) 디지털 정책대화 등 고위급 양자회담, 협정체결	'23~	과기정통부
- (민관 수출개척단) UAE에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	'23~	과기정통부, 산업부
- (거점) 공공거점(중동IT지원센터) 및 민간주도 협력 거점 신설 등 추진	'24~	과기정통부, 외교부

2-2. (동남아) 아세안 협력기금 및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한 진출 확대		
- (외교협력) 한-아세안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협력 강화	'23~	과기정통부
- (아세안 협력기금) 아세안과 디지털 분야 공동프로젝트, 디지털 스쿨 협력사업 추진	'24~	과기정통부
- (민관 수출개척단)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에 파견	'23~	과기정통부, 산업부
- (의료 AI협력사업) 데이터 확보, 해외병원 교차검증 등 협력사업 추진	'23~	과기정통부, 식약처
2-3. (중남미) ODA, 개발은행 협력사업 등을 통한 디지털 수출 여건 조성		
- (외교협력) 한-중남미 ICT장관 포럼, 과기ICT 공동위 개최	'23~	과기정통부
- (국가별 차별화 전략) 수출상담회(민간주도), ODA(정부주도)	'23~	과기정통부
- (민간 거점)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 등 민간거점 신설	'23~	과기정통부
전략3. [기업]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		
3-1.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		
- 해외진출 전문기관 출범, 컨설팅·매칭 등 종합지원 강화	'23~	과기정통부
-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결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	'23~	과기정통부
- 국내외 기업간 파트너십 지원 강화	'23~	과기정통부
- 디지털 기업 수출 밀착지원 체계 구축	'23~	과기정통부
3-2.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기반 강화		
- 신기술 제품 국내외 인증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	'23~	과기정통부, 산업부 등 관계부처
- 해외시장 수요 기반 스케일업 R&D 신설	'24~	과기정통부
-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금융·보험 안전망 구축	23~	과기정통부, 산업부
3-3.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·전시 지원		
- 메타버스를 글로벌 홍보·전시의 새로운 창으로 활용	'24~	과기정통부
- 온·오프라인, 국내외 전시연계를 통한 해외진출	'24~	과기정통부